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137

JCCT 2021-11-17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김민혜*, 변은경**

Kim Min Hye*, Byun Eun Kyung**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3.16±.85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t=-4.86, p<.001$), 대학생활만족($F=11.8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전공만족도($r=.34, p<.001$), 간호전문직관($r=.24, p=.001$), 셀프리더십($r=.54,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은 셀프리더십($\beta=.491, p<.001$), 학년($\beta=.284, p<.001$), 대학생활만족($\beta=.133, p=.039$)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7.3%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self 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202 nursing college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The degre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3.16±.8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ith respect to grade($t=-4.86, p<.001$), college life satisfaction ($F=11.82, p<.001$).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ajor satisfaction ($r=.34, p<.001$),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r=.24, p=.001$), and self leadership($r=.54, p<.001$).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study subjects were self leadership($\beta=.491, p<.001$), grade($\beta=.284, p<.001$), college life satisfaction($\beta=.133, p=.039$),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37.3%. Through this research requires the fellow study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Self Leader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정희원,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생 (제1저자)
**정희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9월 10일, 수정완료일: 2021년 9월 19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28일

Received: September 10, 2021 / Revised: September 19, 2021
Accepted: September 28, 2021
*Corresponding Author: byunek@hanmail.net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의 탐색을 통해 진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준비행동을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해 중요하다[1]. 또한 전공 공부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준비함으로써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래진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하지만 실질적인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실천계획과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2]. 진로준비행동은 전생애를 걸쳐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3]. 진로준비행동이 빠를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대학생의 진로행동은 대학기간 동안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4].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올바른 취업준비, 직장선택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자기개발, 확고한 직업의식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서의 의식과 자질 개발 등이 포함된다[5]. 또한 간호대학생은 진로준비행동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행위에 대한 동기와 포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이직율은 감소하고 현실 적응력은 향상된다[6].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입학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다양한 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없이 막연하게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취업하는 과정을 따라가고 있으며 체계적인 진로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는 다른 보건복지 관련 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업무만족도와 높은 조기 이직을 나타내고 있다[5][7].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취업과 취업 후 적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8].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여 안정된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9].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선택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10].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과 전공에 관련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다[11]. 대학생의 전공만족

도는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2]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3][14]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중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 활동, 그 직무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를 의미한다[15].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직무만족, 간호수행능력,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시기 간호교육을 통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확립이 필요하다[16].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준비행동에 관련된 요인으로 확인되고[17] 전문직관에 대한 정체성을 높이며 간호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므로[18]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을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셀프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는 본인의 환경을 인정하고 목표의 달성과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으로 좀 더 나은 성취를 위해 본인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총체적 과정이다[19]. 대학생이 셀프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은 대학생활용을 돕고 진로역량 함양에도 유용하다[20]. Na와 Yoon[21]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도적으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의 중요한 요인인지 확인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와 취업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진로선택과 취업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있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준비 행동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의 소재한 간호학과 간호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0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 대상자 수는 172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부를 배부하여 208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20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측정은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22]를 Kim과 Ha[11]가 수정한 도구를 요인 부하량이 적은 6문항을 제거하고 12문항으로 구성한 Jung[2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만족 5문항, 전공에 대한 인식 만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Ha[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92$, Jung[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로 나타났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측정은 Yeun, Kwon, An[24]이 개발한 도구를 Kim[25]이 18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

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5개 하위영역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로 나타났다.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도구는 Houghton과 Neck[26]이 개발한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Shin[27]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행동중심적 전략 18문항, 자연적 보상 전략 5문항, 건설적 사고 전략 12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ang과 Moon[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2$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6$ 으로 나타났다.

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Kim과 Kim[3]이 개발한 도구를 Lee[28]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Kwon[29]이 18문항 5점 척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보수집 활동 6문항, 도구구비활동 5문항, 실천적 노력 7문항 3개 영역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8$, Kwon[2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9$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이 169명(83.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평균 25.12세로 ‘23세 이하’가 117명(57.9%), 24세 이상이 85명(42.1%)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 110명(54.5%), ‘4학년’ 92명(45.5%)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무’가 152명(75.2%)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은 ‘중’이 119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근무지는 ‘대학병원’ 114명(56.4%), 종합병원 72명(35.7%), 공무원 11명(5.4%), 기타 5명(2.5%)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69	83.7
	Male	33	16.3
Age (year)	≤23	117	57.9
	≥24	85	42.1
	M±SD	25.12±5.26	
Grade	3rd	110	54.5
	4th	92	45.5
Religion	No	152	75.2
	Yes	50	24.8
College life satisfaction	High	73	36.1
	Moderate	119	58.9
	Low	10	5.0
Desired place work	University hospital	114	56.4
	Secondary hospital	72	35.7
	Public official	11	5.4
	Etc.	5	2.5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의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3.89±.64점, 전문직관 3.91±.63점, 셀프리더십 3.53±.59점, 진로준비행동 3.16±.8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의 정도

Table 2.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Self Leader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02)

Variable	M±SD	Min	Max
Major satisfaction	3.89±.64	1.75	5.00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3.91±.63	2.13	5.00
Self leadership	3.53±.59	2.26	5.0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16±.85	1.17	5.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t=-4.856, p<.001$), 대학생활만족($F=11.82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한 결과 대학생활만족에서 ‘상’ 보다 ‘중’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2)

Characteristics	Categorie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SD	t/F(p)scheff's
Gender	Female	3.12±0.86	-1.47 (.144)
	Male	3.36±0.84	
Age (year)	≤23	3.22±0.87	1.05 (.294)
	≥24	3.09±0.82	
Grade	3rd	2.91±0.77	-4.86 (<.001)
	4th	3.47±0.86	
Religion	No	3.14±0.84	0.78 (.439)
	Yes	3.24±0.91	
College life satisfaction	High ^a	3.53±0.89	11.82 (<.001) a>b
	Moderate ^b	2.95±0.77	
	Low ^c	3.04±0.77	
Desired place work	Universityhospital	3.30±0.85	2.29 (.079)
	Secondary hospital	3.02±0.86	
	Public official	2.83±0.71	
	Etc.	2.91±0.74	

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전공만족도($r=.34, p<.001$), 간호전문직관($r=.24, p=.001$), 셀프리더십($r=.54,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대학생활만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507-.980으로 0.1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20-1.974로 10보다 낮아

표 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Self Leader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N=202)

Characteristic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Self leader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p)			
Major satisfaction	1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56(<.001)	1		
Self leadership	.55(<.001)	.45(<.00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4(<.001)	.24(.001)	.54(<.001)	1

표 5.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02)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924	.494		-1.870	.063
Major satisfaction	-.027	.104	-.021	-.262	.793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018	.093	-.014	-.197	.844
Self leadership	.708	.099	.491	7.130	<.001
Grade [†]	.486	.097	.284	5.034	<.001
College life satisfaction [†]	.236	.114	.133	2.075	.039
R = .623 R ² = .388 Adjuste R ² = .373 F=24.876 p<.001					

[†] Dummy variable: Grade(3rd=0, 4th=1), College life satisfaction(High=1, Middle, Low=0)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618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24.876, p<.001),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373으로 진로준비행동을 37.3%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은 셀프리더십(β =.491, p<.001), 학년(β =.284, p<.001), 대학생활만족(β =.133, p=.039)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의 정도와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3.16±.85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74점

으로 나타난 결과[30] 보다 낮았고, 치위생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91점으로 나타나 결과[31] 보다 높았다.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라는 국가 면허증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으나 대부분 병원의 간호사라는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에 대한 탐색이나 준비없이 병원에 취업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지원은 대부분 성적에 따라 지원하게 됨으로써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간호영역의 산업체 특강, 진로탐색, 현장 견학 등을 통하여 간호사로서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진로준비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서 학년, 대학생활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차이를 낸 결과[32], 치위생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과만

죽도에서 차이를 나타낸 결과[31]와 유사하고,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곳에서 차이를 보인 결과[17]와는 상반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학과 선택동기, 취업희망[13], 종교, 지원동기[14] 등의 일반적 특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나타낸 결과를 통해 다양한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과 선택 동기, 지원동기를 고려하여 고등학생에게 간호학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전공 체험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과정을 통해 간호학에 입학함으로써 단순히 취업의 용이성이나 성적에 따라 지원하는 것보다 자신의 전공에 보다 만족하고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13].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3],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0],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4],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3]와 유사하다. 또한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은 셀프리더십, 학년, 대학생활만족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31][32],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지원동기로 나타난 결과[14],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취업정보, 전공만족도로 나타난 결과[33]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셀프리더십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시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개인적인 통제, 책임감,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32] 셀프리더십의 개발은 진로준비행동을 실제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학년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3학년 보다 4학년 학생이 진로준비행동에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고학년 대상의 진로교육은 특강이나 세미나 형식보다 관심분야의 직간접 체험을 기반으로[32] 전문가와의 직접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이나 실제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 진로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4학년에 집중된 진로준비행동이 전공 교과목에 대

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3학년부터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와 현장 체험을 통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대학생활만족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이 학교와 학과만족을 높여 진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Park과 Byun의 연구에서 학교만족도와 학과만족도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4]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간호학에 입학과 동시에 학과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생활의 만족을 높임으로 학과적응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졸업 후의 진로를 위해 자신에 대한 탐색,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을 것[9]으로 생각된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13][17]와 유사하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30]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과를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과 상관없이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향상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이 1학년 시기부터 시작하여 간호의 전문성과 실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교과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용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9]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 결과[14] [33]를 바탕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위해 셀프리더십, 대학생활만족, 학년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중재방안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은 셀프리더십, 학년, 대학생활만족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준비행동을 돕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에 의의가 있으나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할 수 있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J.I. Choi, T.Y. Han, and Y.H. Lee, "The effects of self-leadship,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3, No. 5, pp. 113-126, 2014.
- [2] H.S. Kim, G.M. Jang, and N. Lee,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ollege student's career identity, self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Vol. 18, No. 1, pp. 261-278, 2004.
- [3] B.W. Kim, and K.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 311-333, 1997.
- [4] J.W. Kim, M.K. Kim, J.K. Kim, and E.Y. Koh, "Cluster analysis and group differences by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career preparat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9, No. 2, pp. 417-442, 2012.
- [5] I.O. Moon, and G.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83-91, 2010.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0.16.1.083>
- [6] S.G. Lee, and J.K. Lee,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velop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3, pp. 1-25, 2008.
- [7] Y.J. Ko, and I.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62-71, 2011.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1.17.1.062>
- [8] K.H. Kim,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i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62-71, 2011.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1.17.1.062>
- [9] T.J. Jang, and M.K.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2, No. 4, pp. 344-352, 2016. DOI: <https://dx.doi.org/10.1111/jkana.2016.22.4.344>
- [10] Y.J. Han, and J.H. Lee,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majoring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Vol. 19, No. 2, pp. 76-92, 2013.
- [11] K.H. Kim, and H.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Vol. 1, No. 1, pp. 7-20, 2000.
- [12] H.K. Kim,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parents' career support on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3, pp. 708-719, 2021.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3.708>
- [13] E.J. Lee, H.J. Kim, E.B. Park, J.H. Park, M.J. Jeong and J.H. Jeong,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 pp. 263-278, 2018. DOI: <https://dx.doi.org/10.22251/jlci.2018.18.1.263>

- [14]Y.J. Yang, and S.A. Park, “The effects of nursing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for nursing students in Chungcheong and Gangwon areas image”,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2, No. 10, pp. 903-930, 2020. DOI: <https://doi.org/10.33645/cnc.2020.10.42.10.903>
- [15]D. Weis and M.J. Schank,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 32, No. 2, pp. 201-204, 2000. DOI: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0.00201.x>
- [16]K. Hallin, and E. Danielson,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1, No. 1, pp. 62-70, 2008.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466.x>
- [17]S.H. Han,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7, pp. 379-389, 2018. DOI: <https://dx.doi.org/10.21742/AJMAHS.2018.07.60>
- [18]H.O. Jeo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ocial self-efficac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2, No. 2, pp. 171-181, 2016. DOI: <http://doi.org/10.5977/jkasne.2016.22.2.171>
- [19]J.W. Lee, and E.S. Choi,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career motiv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8, No. 1, pp. 33-54, 2015. DOI: <http://doi.org/10.5762/AIS.2019.20.2.240>
- [20]Y.S. Han, and M.S. Kim, “Gender difference in self-leadership and its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college lif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5, No. 2, pp. 215-233, 2003. DOI: <https://dx.doi.org/10.18205/kpa.2010.15.2.003>
- [21]Y.J. Na, and B.S. Yoon,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The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Vol. 17, No. 1, pp. 135-150, 2017.
- [22]L.A. Braskamp, S.L. Wise, and D.D. Hengstler,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1, No. 4, pp. 494-498, 1979.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71.4.494>
- [23]M.S. Ju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re competencies(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2014.
- [24]E.J. Yeun, Y.M. Kwon, and O.H. A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DOI:<https://dx.doi.org/10.4040/jkan.2005.35.6.1091>
- [25]M.H.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view of nursing as professionalism”, The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08.
- [26]J.D. Houghton and C.P.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17, No. 8, pp. 672-691, 2002. DOI: <http://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 [27]Y.K. Shin,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Cheonan, 2009.
- [28]M.S. Lee,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2002.
- [29]Y.J. Kwo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related variables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The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ju, 2008.
- [30]M.H. Jang, M.S. Kwak, and J.R. A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39, No. 1, pp. 1-19, 2020. DOI: <https://doi.org/10.37210/JVER.2020.39.1.1>
- [31]K.H. Min, Y.J. Do, and H.H. Min,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20, No. 4, pp. 525-533, 2020. DOI: <https://doi.org/10.13065/jksdh>

20200048

- [32]S.A. Bae, and S.Y. Sung,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9, pp. 271-292, 2016. DOI: <https://dx.doi.org/10.22251/jlcci.2016.16.9.271>
- [33]K.N. Kim, S.M. Im, Y.Y. Jang, D.H. Jeon, M.J. Jeong, J.H. Jeong, and M.H. Cho,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8, No. 2, pp. 1450-1461, 2020. DOI: <https://doi.org/10.15205/kschs.2020.12.31.1450>
- [34]S.H. Park, and E.K. Byun, “Effects of self-efficacy, standard precaution knowledge, awareness on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7, pp. 127-135,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7.127>